

연중 제34주일 (11월 20일)

온 누리의 임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십자가에 달린 왕(루카 23,35-43)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다.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45년, 캔버스에 유채, 위트레흐트 국립박물관, 네덜란드)

예수님께서서는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복음』 51항 참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11. 24.)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마음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5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 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루카 23,42)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낸다.

본래 대축일 명칭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라틴어 본문의 수식어를 명시한다는 이유로 2017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변경됐다. 교회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연중 마지막 주일에 지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정이 인간 세계에서 최악의 세력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각자 권리와 의무 이행, 더 나아가 그리스도왕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뜻을 그리스도왕 대축일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교황 비오 11세가 1925년 교서 「첫째의 것」(Quas Primas)을 통해 제정, 공포했다. 그리스도왕(Christus Rex, Christ the King)의 의미를 성대히 기린다는 취지에서다.

‘그리스도’, ‘메시아’란 칭호는 예수가 지닌 왕의 직능을 뜻한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의 족보에서 예수가 다윗의 후예로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강조한다(마태 1,1-17). 또한 동방의 점성가들은 아기 예수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소개한다(마태 2,2).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인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펼친 구세주이자, 구원을 위해 온 인류를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는 왕이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부른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는 데에도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제정한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보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 왕정에 참여하게 된 기쁨을 누리며 인간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정으로 더욱 새롭게 되도록 기원하게 된다. [가톨릭신문, 2020년 11월 22일]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